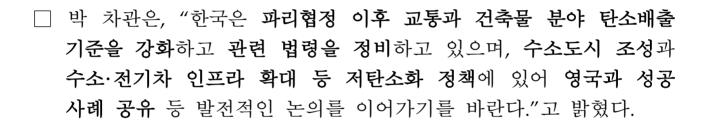
## 박선호 1차관, "한-영 스마트시타저탄소화 등 협력 확대 기대" 20일 영국 기업에너지부 차관 만나 스마트시티, 탈탄소화정책 등 협력 논의

chisholm	국토교통부 n) 영국 기업 라 정책 등 다	에너지부	차관을	을 만나 영	양국 간 2	•
	<b>작년 9월 스</b> 년 한국의 선도	, , ,		, ,		, , ,



표준'으로 인증하는 등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.

- 이날 만남에서 양국은 스마트시티 분야 '한·영 과학기술협력 공동 위원회' 개최 필요성에 공감하고 오는 3월 서울에서 제1차 공동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.
- □ 영국 기업에너지부 차관은 "영국은 2035년까지 가솔린·디젤차 량의 판매를 종료하는 과감한 **탈탄소화 정책을 추진 중**이며 스마 트시티, 수소경제, 건축물 등에서 선도국가인 한국과 협력을 기대한다."고 말하며
  - "특히 올해는 6월 서울에서 P4G 정상회의가 개최되고, 11월 영국 글래스고우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(COP26)가 개최되는 등 전세계 저탄소화를 위해 중요한 시기인만큼 한국이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."고 밝혔다.

2020. 2. 20. 국토교통부 대변인